

“생존 위한 필수” SKT, 컨테이너 기술 기반 B2B 플랫폼 공개

‘타코’ 자가 회복 가능… 탄력 운영
멀티 클라우드환경 서비스 확장 수월
'Btv'에 타코 적용… 소유비용 절감

SK텔레콤은 기업 고객의 원활한 클라우드 활용을 돋는 기업 간 거래(B2B) 전용 플랫폼 ‘타코(TACO)’를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타코는 SKT가 자체 개발한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으로, 컨테이너 기술과 쿠버네티스 기술을 적용해 확장성과 유연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컨테이너는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 서버 속 원하는 곳에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쿠버네티스 기술을 이용하면 서비스 점검이나

업데이트를 할 때 시스템을 중단하지 않아도 되고 자가 회복도 가능해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기업 고객은 타코를 활용해 자사 애플리케이션(앱)을 클라우드 환경에 설치·관리·운용할 수 있고, 퍼블릭 클라우드 통합 관리 기능을 연계해 멀티-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으로의 서비스 확장도 수월하게 할 수 있다.

SKT는 방송 산업을 필두로 한 미디어 분야, 공공분야, 금융권, 유통분야 등 다양한 고객사에 최적화된 형태로 타코를 제공할 예정이다.

SKT는 최근 타코 플랫폼을 SK브로드밴드 'Btv' 서비스에 적용해 총 소유 비용이 50% 절감됐고, 개발 및 운영 생산성도 30% 이상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SKT는 지난 2015년부터 타코 관련 클라우드 연구를 지속해왔으며 F5네트워크와 넷앱, 하시코프 등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 왔다. 2018년에는 AT&T 등과 글로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에어십’을 결성하고 SKT 이동통신 인프라에 타코를 일부 적용해 통신망 운영 효율을 높였다.

SKT 텔레콤 최판철 사업부부장은 “기업에게 클라우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요소”며 “SKT는 타코를 기반으로 급변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기업들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보다 유연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B2B 전용 플랫폼 ‘타코’를 이용하고 있다.

/SK텔레콤

LG화학, ‘네스테’와 친환경 사업 확대

‘네스테’ 바이오 디젤 분야 선도업체

LG화학이 바이오 원료를 활용해 친환경 합성수지 생산에 나선다.

LG화학은 5일 세계 최대 바이오 디젤 기업인 핀란드 네스테(Neste)와 바이오 기반의 친환경 사업 및 관련 시장 확대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네스테는 자체 공정 기술을 보유한 바이오 디젤 분야 최고의 선도업체로, 전사 영업이익의 80%가 바이오 원료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친환경 제품에서 창출되는 글로벌 기업이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바이오 원료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제품의 상업화 기회를 함께 모색하며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아시아, 유럽 및 글로벌 시장 정보를 공유하고 신용도 제품 개발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수량과 협력 기간은 양사의 협약에 따라 밝힐 수 없지만, LG화학은 향후 수년 간 친환경 합성수지 생산에 필요한 바이오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LG화학 여수공장 용성단지 야경.

네스테의 바이오원료는 재생 가능한 폐식용유, 팜오일 등의 식물성 기름으로 생산되며 화석 원료 대비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매우 큰 친환경 물질이다. 이를 통해 LG화학은 바이오 원료 기반의 PO(폴리올레핀), SAP(고흡수성수지), ABS(고부가합성수지), PC(폴리카보네이트), PVC(폴리염화비닐) 등을 생산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 내 실질적인 제품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네스테는 바이오 원료 사업을 석유화학 분야로 확대시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한편, LG화학의 기술력 및 수직계열화 기반의 다양한 고부가 제품에 재생 가능한 바이오 원료를 접목시킬 수 있게 됐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지엠노조 다시 쟁대위 개최… 경영정상화 제동

향후 파업 방식·강도 논의
부품협력업체 한숨 깊어져
지난달 부분파업 생산차질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사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지엠 노조가 강도높은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지엠 노조는 최근 부분파업을 진행한데 이어 또 다시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향후 파업 방식과 강도를 논의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족발한 주요 생산기지 가동 중단 및 수요 위축 등으로 완성차 업계가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한국지엠 노조 측이 강도높은 투쟁을 강행하면서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사측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지엠 부품협력업체의 한숨도 깊어질 전망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엠 노조는 지난달 29일 쟁대위를 열고 이틀간 부분파업을 진행했다. 결국 노조의 부분파업으로 인해 누적 5000대 규모의 생산차질이 발생했다. 그러나 노조는 이



한국지엠 부평공장.

내고 있지만, 한국지엠의 올해 상반기 판매 실적은 총 2만5983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7% 감소했다. 경영 정상화와 흑자전환 가능성이 여전히 어둡다. 게다가 현재 글로벌 GM도 전 세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란 이야기도 있다. 적자 기업인 한국지엠도 구조조정의 삽니다를 언제든지 맞을 수 있는 상황이다.

앞서 사측은 임금협상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되 550만원으로 제시했던 올해 및 성과급을 7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노조는 기본급 월 12만304원 인상과 더불어 통상임금의 400%에 600만원을 더한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며 사측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한국지엠과 내수 시장에서 치열한 순위경쟁을 펼치고 있는 쌍용차 노사는 지난해 9월부터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복지 중단과 축소 등 경영 쇄신 방안에 합의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전직원 임금 및 상여금 반납, 사무직 순환 안식년제(유급휴직) 시행 등 고강도 경영 쇄신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양성운 기자 ysw@

현대로템-철도연, 수소전기열차 협력 ‘맞손’

정부의 수소경제 전략에 발맞춰 현대로템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철도연)이 수소전기열차 기술개발과 조기 상용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현대로템은 지난 4일 의왕 본사에서 철도연과 ‘수소에너지 기반 철도시스템 연구개발’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철도연과 현대로템은 국가 차원의 수소 확대 정책에 발맞춰 미래 신개념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수소에너지 기반 철도시스템의 조기 도입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맺고자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철도연과 현대로템은 트램, 전동차, 기관차 등 수소전기열차 개발을 위한 기술교류와 함께



지난 4일 현대로템 의왕 본사에서 나희승 철도연 원장(오른쪽)과 이용배 현대로템 대표이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소전기열차의 조기 도입을 위한 연구 수행에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협력 사항의 구체적인 실행방안 수립을 위한 실무협의회도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비롯해 현대로템은 수소전기열차 개발 및 상용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양성운 기자

기아차, 中 서비스 고객만족도 2년 연속 1위

車 구매·중고 잔존가치 평가 큰 영향

기아자동차가 중국 소비자들이 평가한 서비스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2년 연속 1위를 달성했다.

기아차는 5일 자동차 시장조사 업체 JD파워가 발표한 ‘2020 중국 고객 만족도 조사’ 일반 브랜드 평가에서 ‘서비스 고객 만족도’ 부문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JD파워 ‘서비스 고객 만족도 평가’는 중국 시장내 기아차 보유 고객의 차량 운행에서 고객이 경험한 서비스 만족도의 지표로써 소비자들의 자동차 구매 및 중고차 잔존가치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1:1 인터뷰와 온라인 조사를 통해 진행된 2020년 중국 고객 만족도 조사는 2016년 3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차량을 구매한 70개 도시, 3만 2,70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고객 서비스 만족도는 ▲예약 ▲입고 응대 ▲서비스 인원 ▲딜러 시설 ▲서비스 가치 ▲서비스 품질 등 6가지 항목 중심으로 평가된다. 이 조사에서 일반 브랜드 중 기아차는 779점을 기록하며 광기훈다(764점), 장안포드(757점), 광기토요타(747점) 등 경쟁사들을 제치고 39개 일반 브랜드 중 1위를 차지했다.



위니아전자

2021년형 전자레인지 출시

위니아전자가 5일 실용성을 높인 전자레인지 신제품 2종을 출시했다.

이번 제품은 15L와 20L 2종으로, ‘클라쎄 달인 레인지’와 ‘클라쎄 원 다이얼’이 컨트롤’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위니아전자는 신제품을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사용성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김재웅 기자 juk@